순천시, 마이스산업 메카 만든다

천혜의 관광자원·시설 활용
굴뚝없는 황금산업 육성 총력
올 130건 47만명 유치 목표
내년 에코에듀체험센터 개소
2019년 잡월드 건립 등 호기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 도시인 순천시가 굴뚝없는 황금산업인 마이스(MICE) 산업 유치에 주력한다. 순천시는 올해 유치 목표를 47만명으로 정했으며, 순천만 국가정원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천혜의 관광자원과 시설들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마이스(MICE)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이벤트(Exhibition&Event)를 유치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마이스 회의 개최 시 참가자의 관광, 쇼핑, 숙박, 교통, 식음료, 문화활동 등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마이스 참가자는 일반 관광객과 비교해 체류시간이 길고 소비지출 규모도 1.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광 산업이 포함하고 있는 숙박, 교통, 레저, 엔터테인먼트, 식음료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IT, 통신, 인쇄출판,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융복합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 마이스(MICE) 산업
회의(Meeting)·포상관광(Incentives)·컨벤션(Convention)·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폭넓게 정의한 전시·박람회와 산업을 말한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로 높아진 도시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유치를 위한 다양한 기반을 다져오고 있으며, 올해를 마이스산업 메카 조성을 위한 도약의 해로 삼기로 했다.

순천시는 우선 마이스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기존 모텔 리모델링 사업 및 가족형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 등도 전개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10개 회의실에서 58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센터)이 맞춤형 마이스 시설로 인정받으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마이스 협회가 선정한 기업회의 명소(유니크 베뉴)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순천시는 올해에도 중·소규모 마이스 회의는 물론 전국단위 행사 및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마이스 회원 등을 방문해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순천시는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 3월 현재 22건 6258명의 마이스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앞으로 기적의 도서관 전국협의회(300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워크숍(500명), 2017 전국 열관리시공인 체련인대회(1만명) 등을 비롯한 전국 단위 대규모 행사를 적극 유치해 올해에만 130건 47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기업체, 단체 등 회원 50명 이상 단체가 순천에서 1박2일간 마이스 회의 및 워크샵을 개최할 경우 사전 신청시 총 예산의 30～7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오는 2018년 동시에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전시실을 갖춘 에코에듀체험센터가 완공되고, 2019년에는 잡월드가 건립되면 순천은 마이스산업의 메카로 우뚝서게 될 것"이라면서 "마이스산업이 순천의 미래 먹을거리가 되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행복 순천' 정책 만들기 市·지역대학·시민단체 맞손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 등
정책 플랫폼 공동운영 협약

순천시가 지역대학·시민사회와 함께 '행복한 순천 조성'을 위한 정책 만들기에 나선다.

순천시는 최근 지역내 3개 대학교 및 그린순천21과 '행복 순천 만들기' 지역사회 정책 플랫폼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정책 플랫폼'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완성을 통한 아시아생태문화중심도시 도약으로 행복 순천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비전 수립 과정에 관내 3개 대학과 그린순천 21이 적극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충훈(가운데) 순천시장은 최근 순천대, 순천제일대, 순천청암대 등 지역 3개 대학교 및 그린순천21과 '행복 순천 만들기' 지역사회 정책 플랫폼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시 제공〉

협약에 따라 순천대학교와 순천제일대학교, 순천청암대학교 등 관내 3개 대학 교수와 학생들은 순천시 중장기 계획 등 정책 수립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사회 협조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협의기구인 그린순천 21은 순천시와 3개 대학 사이에서 중간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협약 내용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미래산업 발굴, 산학협력, 취·창업 지원, 진로설계, 청년도전사업, 문화도시'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위해 협업하고 지역 인재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하게 된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협약식에서 "순천에 있는 3개 대학이 큰 재산이고, 순천에 생태와 자연을 미래의 새로운 트렌드로 알려준 게 그린 순천 21이었다"면서 "새로운 시대는 접속의 시대, 플랫폼이 경쟁력이라는 점에서 교수, 학생, 행정, 시민들이 하나가 됐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kwangju.co.kr

광양 새 명물 중마～금호 해상보도교 오늘 임시 개통

광양시는 "31일 오전 9시부터 중마동과 금호동을 연결하는 '중마～금호 해상보도교〈사진〉'를 임시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마동과 금호동은 이번 보도교 개통으로 10분내에 오갈 수 있게 됐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추가로 20억원을 투입해 야간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최종 준공할 계획이다. 중마～금호 해상보도교는 총연장 300m, 폭 4m 규모로 차량은 통행하지 못하며, 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5년 6월 착공에 들어가 1년 9개월만에 임시 개통을 하게 됐다.

김재희 광양시 수질환경팀장은 "해상보도교는 중마동과 금호동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으며, 앞으로 국내 유일의 야간경관 조명까지 설치하면 광양을 대표하는 볼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그동안 국비 50억원 등 총 121억원을 들여 이번 해상보도교 신설과 함께 삼화섬 일대를 전망대와 잔디마당 등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이 일대를 중심으로 2019년 말까지 180억원을 들여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광양시민 10명 중 8명 지난해 시정 만족

광양시민 10명 중 8명은 지난해 시정 운영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한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사업에서 80% 이상의 시민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구현을 위해 6개 분야 24개 사업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했다.

광양시는 크게 교육 분야와 부서별 대표 정책사업, 사회복지, 보건복지, 시설물 관리 분야 로 나눠 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다.

주요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교 무상급식 만족도 조사'에서는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92%로 높게 나타났으며, 위생관리 상태도 84%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식 식단 구성과 식재료 품질, 제공되는 급식의 맛, 영양과 건강 모두 8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학교 무상급식과 함께 조사한 광양매실청 지원에 대한 만족도 역시 94%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도서관의 장서에 대한 만족도는 중마 66.2%, 중앙 61.8%로 모두 낮게 나와 신간도서 확충과 다양한 분야의 도서 비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서비스 역시 전자자료(전자책, 오디오북)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도서관은 주거 밀집지역과 다소 떨어진 곳에 있어 도서관 방문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정운영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 82.8%가 시정운영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88.1%는 광양시 거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민원실 방문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89%가 민원실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답했으며, 편의시설 이용에도 91.0%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정비

광양시가 진월면 망덕리에 있는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사진·국가등록문화재 제341호)의 전시 공간 일부를 정비한다.

이번에 개선할 전시공간은 지난 2010년 설치된 안내판과 유고 보존 보관장소다. 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팸플릿을 제작하고 노후한 전시시설과 주변경관을 정비한다.

시는 최근 건축소유자와 협의해 일부 공간 개선을 승낙받고 지난 1월 윤동주 기념관, 문학관 사례조사를 했으며, 윤동주 시인과 정병욱 선생의 유족인 윤인석, 정학성 교수의 자문과 자료 제공을 통해 전시자료에 대한 감수도 완료했다.

정비 후에는 유족이 제공한 정병욱 선생의 미공개 자료가 전시된다.

지윤성 광양시 문화재팀장은 "윤동주 시인과 정병욱 교수의 유족들이 자료 구성부터 안내문 감수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시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한편, 정병욱 가옥은 1925년 망덕포구에 건립된 점포형 주택으로 양조장과 주택을 겸용한 보기 드문 건축물이다. 특히 '서시', '자화상', '십자가', '별 헤는 밤' 등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 19편이 수록된 육필원고 유일본이 일제의 감시를 피해 마루 밑에 숨겨져 있던 곳으로 문화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정병욱 가옥 관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061-797-2419)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경원기자 kkw@